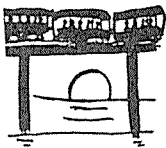


쇼팽의 음악과 조국애가 살아 숨쉬는 나라

폴란드 (2)



배 순덕

바르샤바 시내에는 트램(Tram)이라고 불리우는 전차가 시내를 순환하고 있었다. 레일을 따라 덜컹거리며 오던 전차가 멈춰서자 사람들이 우르르 타고 내린다. 영화 '장군의 아들'에서 나오는 종로거리의 전차보다는 조금 더 빠르고 소란스러웠고, 레일도 복선으로 깔려 있어 약간은 복잡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타고 내리는 승객들의 모습이, 오뎅한 낯날에 이국적인 눈동자와 머리색 깔만 아니라면 마치 흑백사진을 들여다 보는 듯한 향수가 느껴지는 풍경이었다.

시내를 달리는 대중교통수단에는 트램 말고도 아우토부스(Autobus)라는 버스도 있었다. 하지만 승차권을 파는 곳은 쉽게 눈에 띄지가 않았다. 승차권을 사기 위해 이곳저곳을 찾아 다니다 간신히 한 곳을 발견했다.

우리나라의 가두 판매소처럼 생긴 작은 가건물인데, 건물의 겉면에는 미국산 말보로담배와 코카콜라 그림이 삼분의 이 쯤을 차지하고 있었다. 마치 중국의 곳곳에 일본어로 된 일본 광고가 판치는 것과 흡사했다.

그 날은 자유시간이 많아 숙소근처에서 버스를 타고 구 시가에 있는 바르샤바역 사박물관으로 향했다. 도중에 정류장을 잘못 내려 걷기 시작했는데, 길을 물어보면 사람들은 대부분이 친절했다.

그렇지만 섬세하게 얽혀있는 골목 속에 자리잡고 있는 박물관을 찾기가 그리 쉽진 않았다. 함께 온 일행 셋과 어울려 길바닥

에서 잠시 지도를 펼쳐 보다가, 뜻하지 않게 전날에 우리를 안내해 주던 폴란드인 가이드 아주머니를 만났다. 그 날이 아마 토요일 오후인듯 싶었다. 그 분 역시 일찍 일을 마치고 볼일을 보러가는 듯 바쁜 걸음걸이였는데, 우리의 얘기를 듣더니 자신이 직접 박물관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여기저기 골목을 가로질러 가능한 한 빠른 길로 박물관에 다다랐으나 입구에서 출입이 통제되었다. 박물관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 시간마다 열명 이상의 인원이 되어야 입장이 가능하니 열명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드문드문 박물관을 관람하러 오는 관광객들이 있었으나 숫자를 채울 때까지 기다리기가 지루했는지 조금 기다리다가 이내 가버리곤 하여 좀체로 열명이 채워지지 않았다.

태양은 뜨겁고 박물관의 문 닫을 시간은 다가오고, 초조해진 가이드 아주머니는 그곳의 수위인듯한 사람에게 차초지종을 설명하며 몇번인가 들어 보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 미안했던지 아주머니는 다른 곳이라도 구경하겠느냐며 우리를 데리고 근처의 수도원으로 갔으나 그곳도 토요일 오후라 출입이 안된다는 것 같았다.

땀별 아래에서 몇 시간을 돌아다닌 탓인지 끈끈한 열기가 쉴 새 없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 옷이 흠뻑 젖었다.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작은 선물을 건네주고 가이드 아주머니와 헤어져 근처의 상점으로 들어갔다.

물을 사려고 했으나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물은 뜨뜻미지근하여 먹을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상점 앞 돌계단 위에 앉아 지친 다리를 쉬고 있으니 더위가 조금씩 가시는 듯 했다.

함께 왔던 일행들은 시계를 산다, 목걸이를 산다 하고 호기심에 가득찬 시선으로 골목의 상점들을 둘러거렸으나 나는 기념이 될 만한 엽서 몇세트를 구입했을 뿐 다른 것을 구입하는 것에는 별반 관심이 없었다. 그것은 평소 물건을 사는데 익숙치 못한 성격 탓도 있지만, 여행을 떠나오기 전 나름대로 세운 계획중에서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함부로 외화를 낭비하지 말자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90% 이상이 가톨릭을 신봉하고 있는 폴란드에는 곳곳에 성당이 있다.



해외 건설 현장에서 그렇게 고생하던 다수의
사람들이 어렵게 벌어들인 외화가 오늘날
우리가 해외여행을 할 정도로 국력을
키우는데 한몫을 했음에 틀림없는데, 내
돈이라고 마구 쓴다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만은 아닌 듯했다.




출발을 며칠 앞두고 우리나라의 시장과
백화점 등을 먼저 둘러 보았는데 이젠 우
리도 상품의 질과 종류가 다양하여 기념품
이외에는 굳이 외국에서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중요한 이유는 가까운
친척 중에 해외에 가서 몇년간 근무한 사
람에 대한 기억 때문이기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등 해외건
설 사업이 한창이던 때, 전기기술자였던
그 분은 몸에 맞지 않는 기후를 견디며 사
우디아라비아의 건설현장에서 몇년을 근
무하다가 귀국을 했다. 귀국한 그 분의 가
방 속에는 작업복 몇벌과 가족들을 위한
선물 몇가지, 그리고 자신이 복용하던 약
병 등이 들어 있었다.

그 때 나는 그것들을 보고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었다. 그렇게 고생하던 다수
의 사람들이 어렵게 벌어들인 외화가 오늘
우리가 해외여행을 할 정도로 국력을 키우
고 GNP를 높이는데 한 몫을 했음에 틀림

이 없는데, 내 주머니에 들어 있는 돈이라
하여 아무 생각없이 마구 쓴다는 것은 그
리 유쾌한 일만은 아닌 듯했다.

폴란드를 보호한다는 의미의 칼을 들고
서 있는 왕의 동상이 있는 광장을 바라보
며 스케치를 했다. 모처럼 쫓기지 않고 마
음껏 스케치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같은 방을 사용하는 선숙이가 스케치를 하
는 동안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어 고마웠
다. 그녀는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한 탓인
지 그림을 전혀 모르는 다른 일행들보다는
이해의 폭이 넓어 나오는 비교적 죽이 잘
맞는 편이었다.

자유시간에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쇼핑
이나 유희적인 놀이에 관심을 보일 때 그
녀만은 늘 나와 함께 다니며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더 깊게 보고자 노력하는 듯
했다. 그러나 함께 스케치를 해보자고 할
때만은 자신이 없다며 빙긋이 웃곤 했다. 

〈필자=화가·호는 창랑(滄浪)〉